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 복지 데스크

## 강진군, 제40회 전남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참석

### 올바른 특수학교 설립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주관 1천2백여명 참여

강진군생활이동지원센터 근무 서상래氏 도의회 의장상

지난 8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진군지회(지회장 윤재항)가 나주시 종합스포츠타워에서 열린 제40회 전라남도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도내 시각장애인 1천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선언, 축하공연, 흰지팡이 현장낭독, 유공자표창, 감사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환송에 나선 이승욱 군수는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 분들의 표사이고 자부심의 상징으로 아주 의미 깊은 행사이다”며 “행사 참여를 통해 삶의 활력소가 되고, 소통·화합하는 문화

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진군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상래 씨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인식 개선에 기여하여 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하였다.

유공자 표창을 받은 서상래 씨는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시각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흰지팡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흰지팡이의 날은 매년 10월 15일로 시각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1980년 세계맹인연합회에서 제정한 날이다.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고 활동하는데 적합한 도구이자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성취를 나타내는 공

인된 상징으로 고대로부터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용구로 사용돼 왔다. 강진=김영일 기자

광주시의회(의장 김동찬)는 8일 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올바른 특수학교 설립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양질의 특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본초초등학교 김은미 특수교사와 김용현 KTEL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센터장이 기초발제를 하고, 조선대학교 김정연 교수, 박소영 도산초등학교 특수교사, 김유선 광주장애인부모연대 회장, 강민구 광주선명학교 급식보조원, 문상중 광주시교육청 장학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용현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특수학교’라는 주제로 “어쩌면 광주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신설 특수학교에 대한 요구가 학교 안팎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 학교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는 단순히 과밀학급을 해결하는 현상적 문제를 넘어 앞으로 광주 시민사회가 발달장애인을 어떻게 대하고 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를 2023년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에는 5개의 특수학교가 있으나 선명학교의 경우 지리적 위치상 장애학생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특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며 설립한지 41년이 되어 노후와 문제가 심각하다. 선광학교의 경우에도 52학급으로 학생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이며, 선우학교 역시 설립당시 38학급 규모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47학급으로 특수교육에 필요한 별도의 특수교육실 조차 부족한 현실이다.

문상중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한 수요자 맞춤형 공간 설계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봉우 기자

## 장애인과 함께 걷는 금성산 나들이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 인식개선 위해 마련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강인규, 민간위원장 홍철식)는 지난 5일 관내 장애인 80여명, 자원봉사자, 시민 15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제2회 장애인과 함께 걷는 금성산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나주시 지사협 장애

인분과(분과장 전주형) 주관으로 걷기 운동을 통한 장애인들의 신체 활력을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지사협 회원과 자원봉사자 150여명은 금성산 걷기와 더불어, 오카리나·하모니카·라인댄스·합창 등 가을맞이 재능기부 공연을 통해 장애인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줬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지역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조성하고 재가 및 시설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적극 유도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고 공평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철식 민간위원장도 이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통합적 지역복지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이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나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장성군 동화면 복지공동체

### 이웃 주거불편 해소

장성군 동화면에 ‘우리동네 해결사’가 됐다.

장성군 동화면 복지공동체(대장 박균수)는 9월 27일과 10월 1일 이틀에 걸쳐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가구를 찾아 집수리 활동을 펼쳤다.

이날 회원 7명은 벽지와 장판이 노후되어 불편을 호소하는 김모 씨(57세)의 집을 방문했다. 회원들은 전기, 가스, 철물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각자의 재능을 기부하기 위해 뜻을 모아 벽지 도배, 장판 교체, 가구 수리, LED 전구 교체 등을 진행했다.

수리된 주택을 본 김모 씨는 “집이 많이 낡았으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수리할 엄두를 못 냈었는데, 회원들 덕분에 집이 깨끗하고 말끔해졌다”며 복지공동체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동화면 복지공동체는 올해 7월 지역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결성됐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